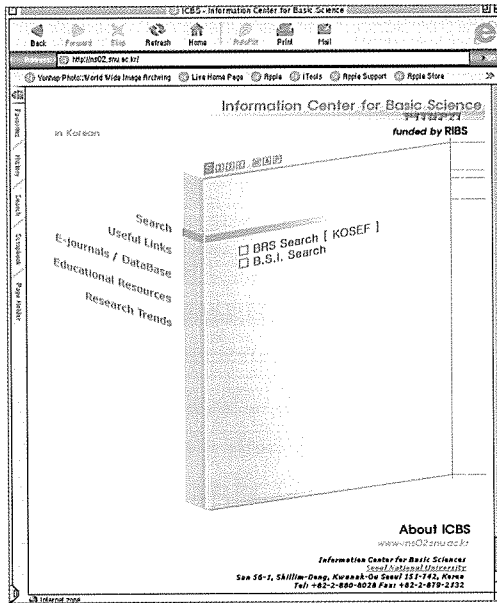


과학전문지식 가득 담겨



필자의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자. 인터넷 세상이란 지면을 통해 과학과 관련된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는 필자는 IT전문지의 기자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대학 시절엔 생물학을 전공했다. 깊고도 방대한 생물학의

어려움에 화들짝 놀라 연구자, 학자로서의 길은 포기했지만 누구나 그렇듯 대학시절이 인생 중 가장 빛나는 때로 각인되어서인지 가끔 그 시절 공부하던 때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 때문인지 가끔 과학뉴스에 인용되는 저널들의 이름을 볼 때면 향수에 사로잡히곤 한다. 며칠 전에도 문득 신문을 보다 이런 기억이 떠올라 이번 인터넷세상의 주제로 삼기로 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외국 저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지도 몇 년이 된 지금, 대부분의 외국 과학저널들은 전자 저널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중 필자가 놀란 것이 하나 있다. 93학번인 필자의 경우 대학 시절(물론 읽은 횟수를 꼽아보라면 손에 꼽지만) 외국의 유명 저

널이다. 교과서를 보면 무슨 저널 몇 호에 실렸던 거다라는 주석이 항상 붙어있었고 석사나 박사급 선배들이 이런 저널에 논문을 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던 것을 지켜보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필자와 달리 계속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는 동기생들을 보면 가끔 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무슨무슨 저널에 논문이 실렸다는 글을 자랑삼아 올리곤 한다. 그럴 때면 축하한다, 대단하다는 리플이 쏟아진다. 심사가 까다롭고 영어권이 아닌 국가의 연구자들에게는 꽤나 배타적이기로 유명한 이런 저널에 논문을 실는 것은 본인 자신의 성취감은 물론이요 학자, 연구자로서의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명 저널에 논문을 몇 편이나 실었는가가 교수 채용의 주요 심사기준 중 하나라고 한다.

이런 것들 때문인지 가끔 과학뉴스에 인용되는 저널들의 이름을 볼 때면 향수에 사로잡히곤 한다. 며칠 전에도 문득 신문을 보다 이런 기억이 떠올라 이번 인터넷세상의 주제로 삼기로 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외국 저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지도 몇 년이 된 지금, 대부분의 외국 과학저널들은 전자 저널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중 필자가 놀란 것이 하나 있다. 93학번인 필자의 경우 대학 시절(물론 읽은 횟수를 꼽아보라면 손에 꼽지만) 외국의 유명 저

대학시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일단 영문으로 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원서들. 특히 1학년 때 배웠던 '생물학(Biology)'이라는 영문 생물학 개론서는 A4용지의 1.5배에 달하는 크기와 1천쪽이 넘는 육중함으로 대학 새내기 시절을 꽉 채워주었다. 그리고 또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셀(Cell)이니 네이처(Nature)니, 사이언티픽 아메리카(Scientific American)니 하는 외국의 각종 과학 관련 학술잡지, 즉 저널

<과학저널 관련 사이트>


널들을 보려면 꼭 영문 원판을 도서관에 가서 복사한 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네이처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두 잡지는 한글판 웹진이 2001년부터 발행되고 있었다. 세상 참 좋아졌다고나 할까. 2001년 이후 학번들은 축복받은 세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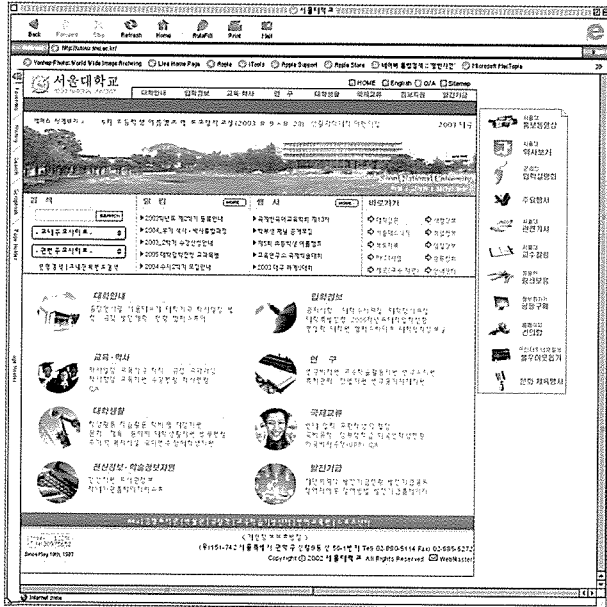
네이처의 한글판(WWW.NATUREASIA.COM/KOREA)은 2001년 9월부터 매주 꼬박꼬박 발행되고 있었다. 최신회의 커버스토리는 히로시마 원폭에 의한 중성자 피폭량 측정, 원폭 피해자들의 방사능 노출 정도를 분석한 논문인 것 같은데 역시 굉장히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이다. 초보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할 듯하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한글판은 사이언스올제(WWW.SCIENCEALLZE.COM)란 이름으로 2001년 5월부터 발행되고 있다. '올제'란 단어에 대해서는 오늘의 바로 다음날, 곧 '내일'을 뜻하는 우리 나라 토박이말이란 설명이 붙어있다. 한글판을 내면서 꽤 고심했던 듯하다. 이 사이트에는 사이언티픽아메리칸에 실린 논문의 요약본과 함께 각종 과학뉴스들이 올라와 있다. 이 저널은 네이처보다는 훨씬 일반인이 다가가기 쉬운 잡지로 천문학, 물리학, 컴퓨팅 등 과학 전문분야에 걸친 논문들이 소개돼 있다.

이외에 보다 전문적인 저널 자료를 얻고 싶다면 서울대 기초과학학술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정보제공사이트(ns02.snu.ac.kr)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이 사이트는 전자저널 메뉴를 통해 알파벳순으로 각종 외국 전자저널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어 곧바로 연결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저널들 역시 대부분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글_김인진 전자신문 기자 ijin@etnews.co.kr